

“44사이즈는 불안...55는 돼야”

앙드레 김 '깜미론 모델' 퇴출 선언



최근 국제적으로 과도하게 마른 모델의 패션쇼 출연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대해 앙드레김도 자신의 패션쇼에 너무 마른 모델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앙드레김은 30일 오전 방송된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서 "지나치게 마르려고 하는 사람은 무대에 나갔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지지 않을까 굉장히 불안하고 디자이너 입장에서 겁이 난다"며 "에너지가 있으면서 영양 섭취를 잘하고 운동을 탄탄하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건전한 모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델에 대해 "우리나라 사이즈를 기준으로 볼 때, 44보다 더 작은 모델보다는 55정도 입을 수 있는 모델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지나치게 마르지 않으면서 너무 볼륨 있지도 않고, 탄력 있는 몸매에 지성적인 교양미가 풍기는 그런 모델을 굉장히 선호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美 하버드대서 '韓流' 특강

방송인 박정숙씨와 함께 내달 16일 90분간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35)과 방송인 박정숙(37)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열리는 '한류 인 아시아: 다이얼로그'를 타이틀로 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자(Key Note Speaker)로 나선다.



<박진영씨>

<박정숙씨>

하버드 한국학 연구소와 하버드 라이선스 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2월16일 오후 4시(현지시간) 하버드 대학 정치대학원인 케네디 스쿨(John F. Kennedy School of Government)에서 개최된다.

아시아에서 새롭게 인 한류를 국제관계를 규정짓는 하나의 국제질서로 조망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시아에서 새롭게 인 한류를 국제관계를 규정짓는 하나의 국제질서로 조망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蘭兄蘭弟’ 부농의 꿈 이룬다

서양란 4만본 출하 역대 수출

“한국산 우량 종묘 육종 됐으면”

강진 ‘연담 난 농원’ 운영 오영택·용택·은택씨 3형제

쌀시장 개방 등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강진의 3형제가 ‘서양란’을 재배해 부농(富農)의 성공신화를 이루었다.

강진군 신전면 주작산(475m) 자락에서 1995년부터 ‘연담 난 농원’을 운영하는 오영택(56)·용택(51)·은택(41) 씨 3형제.

큰형인 영택씨가 먼저 시작했는데, 지난 95년 막내인 은택씨가 나서면서 3형제 모두 난 재배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들 형제는 4천500여 평의 비닐하우스에서 동·서양란 교배종인 ‘도화’ 등 심비디움 10여종을 주력품종으로 해 마키 스페셜, 노부꼬, 히어로 등 다양한 서양란을 매년 4만 본씩 출하해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들의 한 해 매출액만 3억원에 이른다.

특히 난을 좋아하는 중국 시장에 매년 1만 5천본을 꾸준히 수출을 하고 있다. 올해는 작황이 좋지 않아 7천 본만 수출전문화사를 통해 납품할 계획이다.

중국은 1본에 최고 2만 5천원의 높은 가격뿐

만 아니라 덩으로 수출물량에 따라 물류비용과 종묘구입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고부가가치의 최고시장이다.

중국 시장에 출하할 난은 빨간색과 노랑 계열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 정치인은 빨간색 난을 선호하고, 사업가들은 노랑색 난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 형제가 재배기술을 익히기까지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처음 시작하면서 “차라리 갓난아이 키우는 것이 쉽겠다”고 했을 정도다.

지금도 매일 10시간 남도북 비닐 하우스에 있어야 한다. 온도 및 습도를 조절하고 난 상태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모든 난이 제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 들여온 종묘의 50%가 실패, 수출하기 힘들 때도 있는 것.

하루빨리 ‘한국산’ 우량 종묘가 육종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들 형제는 산자락에 하우스를 설치, 온도



강진 주작산 자락에 자리 잡은 ‘연담 난 농원’에서 오영택(사진 오른쪽), 은택(사진 왼쪽)씨가 출하할 난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다.

에 민감한 난의 여름 더위를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유통비절감을 위해 연탄보일러를 직접 제작·사용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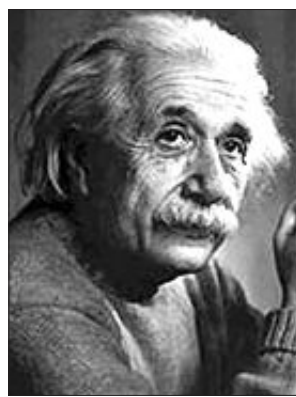
만행인 오영택씨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난을 생산하려면 출하에 맞춰 개화시기 조절을

잘해 1본에 3~4개의 꽃대를 만들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아인슈타인도 ‘스트레스·박봉’에 고뇌

인간적 모습 담긴 서신 130여통 첫 공개돼



천재 과학자였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박봉에 시달렸고 연구하는 데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면 자녀 및 이혼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등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사실이 처음 공개된 그의 편지를 통해 드러났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아인슈타인과 재혼한 사촌 열사의 딸 마고는 지난 1986년 7월 숨지면서 아인슈타인이 1915년에 가까운 친구, 친척들과 주고받은 130통의 편지를 남겼으며 20년후 일련에 공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최근 캘리포니아공대(칼텍)와 프린스턴대학이 독일어로 된 편지들을 영어로 번역해 출간하면서 이같은 사실들이 드러났다.

먼저 아인슈타인은 한 친구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나는

비인간적으로 일하고 있다. 늘 초과근무하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동료 과학자들은 내 이론에 흠집을 내려 하거나 연구를 먼저 완성하기 위해 경쟁하는 등 몹시 어렵게 행동한다”고 밝히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평범한 과학자였음을 내비쳤다.

그는 또 이들 편지에서 별거중인 부인 밀레바 마리치와 함께 스위스에서 살고 있던 두 아들과 자주 만나지 못한 데다 적은 수입으로 속상해하고 결국 속병까지 얻었으며 후에 결혼한 사촌 열사 로베탈과의 로맨스 등도 적었다.

“日 드라마 보며 회화 배우세요”

개그우먼 정선희, 두번째 교재 출간

개그우먼 정선희가 자신의 두번째 일본어 교재 ‘정선희의 드라마 일본어’를 출간했다.

지난 2003년 ‘복록 뛰는 생활 일본어’를 선보였던 정선희는 이번에는 일본 드라마 속 리브스토리를 통해 일본어 회화를 재미있게 익히도록 엮었다.

‘러브 제너레이션’, ‘뷰티풀 라이프’, ‘중매결혼’, ‘전차남’ 등 일본 드라마를 보며 회화 실력을 키웠다는 그가 엄선한 드라마 14편에 등장하는 명장면 명대사가 소개된다.



‘왕인박사 현장협회’ 현판식 가져



왕인박사현장협회(회장 전석홍) 현판식이 신라현 영암군의회회장, 안병감 영암경찰서장, 김치국 영암교육장과 유림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영암군 구림면 왕인박사 유적지내 왕인학당에서 열렸다. (사)왕인박사현장협회는 지난 1973년 왕인위업선양과 기념사업, 유적조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지난 12월 전석홍 전 전남지사가 제 6대 회장에 취임했다. /영암=김한빛기자 hnkim@

최인기 국회의원 ‘농협 감사패’ 받아



최인기 국회의원(지역구 나주·화순)이 30일 어려운 농업과 농업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이날 박용순 농협전남지역본부장(왼쪽)이 정 회장을 대신해 전달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농가목돈마련저축비과세 적용시한 3년 연장 등 농업부담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정기국회를 통과시키는 등 농촌과 농민의 생활안정과 복지개선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실천했다. /이종태기자 jtle@

광주은행, 적십자회비 3천만원 전달



정대석 광주은행장(왼쪽)은 30일 오후 광주시 북구 매곡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를 방문, 나무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에게 적십자회비 3천만원을 전달했다.

벤 존슨, 獨 육상 지도자로 변신



왕년의 스포터 벤 존슨(46·캐나다)이 독일에서 유망주를 길러내는 지도자의 길에 들어선다.

30일(한국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존슨은 개인 최고기록 10초94로 아직 다들 잊지 않은 독일 스프린터 브란트 프라티(20)를 다음 달부터 지도하기로 했다. 존슨은 2월9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육상대회에 맞춰 프라티

의 전담 코치를 맡는다. 라이프치히 육상대회 홍보담당자 알렉산데르 리히터는 “존슨이 육상 선수로서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 이제 그는 코치로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존슨은 서울올림픽에서 당시 남자 100m 세계기록인 9초79를 찍었지만 금지약물인 근육강화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메달과 기록이 취소됐고 국제 육상계에서 영구 제명됐다.

내방

▲전남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이상기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 ▲최중주씨 장남 만선(씨더은행 치평지점) 한옥연씨 장녀 서지영(롯데백화점)양=2월3일(토) 낮 12시10분 오페라하우스 1층 특실.
- ▲진영근(전남새마을회 사무처장)씨 장남 홍우(엘코코리아)군 이석강(전 무등초교 교장)씨 차녀 영아양=2월3일(토) 낮 12시30분 광주시 삼각동 성당.
- ▲김근재(등암LPG충전소 대표)씨 장남 유석(조대병원 의과사)군 김원석씨 딸 진연(조대병원 약사)양=2월3일(토) 오후 1시 오페라하우스 1층 특실.
- ▲김덕중(영보교회 목사·광산김씨 영암군 종친회장)씨 장남 한성군 이정홍씨 차녀 은지양=2월3일(토) 오후 1시 동서울 우원집중국 3층.
- ▲서영호씨 장남 희수(서울삼성

- 병원 정형외과 의사)군 양희창(전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장)씨 장녀 정수(치과사)양=2월3일(토) 오후 1시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 ▲박경중(전 나주도의원)씨 차남 재영군 김준영씨 장녀 선경양=2월3일(토) 오후 4시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 ▲박동근씨 차남 정현군 김남준(광주대성학원 총무부장)씨 차녀 진아양=2월4일(일) 낮 12시 상무리 초칸벤션 웨딩홀 2층 데이지홀.
- ▲이재준씨 장남 순호군 양해일씨 장녀 지영양=2월4일(일) 낮 12시40분 금호생명빌딩 3층 금호컨벤션웨딩홀 크리스탈홀.
- ▲허희중씨 장남 철호군 반재용(광주매일신문 편집부국장 겸 경제부장)씨 장녀 아영양=2월10일(토) 오후 1시30분 서울 롯데호텔 소공동 지점 사파이어볼룸. 피로연 2월2일

- (금) 오후 6시 무진회관 앞 예연.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 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 ▲변호사 공채원 법률사무소 토 요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통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

- 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 ▲홀트이동복지회 광주이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 ▲광주 지산초교 제 38회 동창회

- (회장 최중채) 모임=2월3일(토) 오후 6시 무등골. 011-620-5729
- ▲광주시대부중 제 4회 동창회(회장 전성수) 모임=2월4일(일) 오후 6시 맛갈정. 226-2668
- ▲경기도 광주·전남 총동창회(회장 조기상) 모임=2월5일(월) 오후 6시30분 금수장호텔 2층 아리랑하우스 장미홀. 227-4848
- 모임
- ▲제 28차 광주양동신협(이사장 최영도) 정기총회=2월3일(토) 오후 2시 광주양동신협 교육회관. 366-0013~5
- ▲전남지구 JC특우회(회장 영동인) 정기총회 및 회장단·감사 이·취 임식=2월8일(목) 오후 4시 파레스 관광호텔.017-611-9018
- 향우회
- ▲재광 곡성 삼기향우회(회장 김채정) 모임=2월 4일(일) 오후 6시 두암동 영양돌술방. 266-5566

- 지원. 문의 016-629-3932
- 부음
- ▲백목임씨 별세 유정순씨 모친 상 김용선(자영업)씨 빙모상=발인 2월1일(목) 송정장례식장 101호. 941-7101
- ▲김서자씨 별세 김세현(광주 북구보건소 소장)·세진씨 모친상=발인 31일(수) 그린장례식장 2층 9분향소. 250-4409
- ▲박경순씨 별세 송길중(회사원)·수진·수영씨 모친상 김명기(대 한건설 대표)·선명훈(성명 세탁소)씨 빙모상=발인 31일(수) 신가병원 장례식장 2호실. 962-4444

가족처럼 따뜻한 정성으로...
알귀빈장례식장
광주 우신동 80m 도로변
문의 (062) 943-4444